

II. 99년 주요 정책 과제

1.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대외신인도 개선

- 98년 중반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해오는 등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밝은 신호가 비치고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외신인도 향상 등 투자 환경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낙관적 경제 전망의 확산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대외신인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마무리, 그리고 신용 경색 해소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대외신인도가 확고하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노사관계의 안정, 민간 부문의 해외부채 해소, 재정적자의 안정적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 동향

- 사상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기록

- 98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398건, 88억 5,200만 달러로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함. 97년 대비 건수로는 32.5%, 금액으로는 27.0% 증가하였음
- 특히 98년 5월 이후 8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12월에는 159건, 19억 4,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기존 주식 취득, 공장인수 또는 사업부문 인수 방식 등 대규모 M&A형 투자가 주도하여 총 외국인 직접투자의 53.1%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93	94	95	96	97	98
투자금액(백만달러)	1,044	1,317	1,941	3,203	6,971	8,852
증가율(%)	(16.8)	(26.1)	(47.4)	(65.0)	(117.6)	(27.0)

- 이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세는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커지고 있는 등 대외 신인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99년에도 IMF 체제의 극복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대외신인도의 투자 적격 상태로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대외신인도 개선 가능성

- 99년 초반에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상태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 높으나,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음
 - Moody's는 지난 12월 19일 한국을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실사 대상에 (Review for Possible Upgrade) 올려놓았다고 발표하여 신용 등급이 투자적격 상태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음
 - IBCA 역시 12월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 관찰대상(Rating Alert positive)에 올려놓았고, 금년 초에 상향 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발표함.
 - S&P는 지난 1월 4일 한국의 신용 등급을 안정(Stable)에서 긍정(Positive)으로 상향 발표하였음
 - 한편, 미국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가 지난 12월말 발표한 국가 위험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총 12개 평가항목 중 환율과 물가안정, 기업가신뢰 등 3개 부문에서 위험도가 낮아졌고, 공공재정 1개 부문은 위험도가 높아져 전반적으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임
 - 이같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 움직임은 외환사정의 개선, 실물경제의 회복 조짐, 한국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 등을 고려한 것임. 반면 상향 조정에 대한 걸림돌로는 국제환경의 악화 가능성, 기업의 높은 부채 수준, 신용 경색 현상 등이 작용하고 있음
- 외평채 가산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향안정세 유지를 위해서는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필요
 - 작년 4월 뉴욕에서 발행한 정부의 외평채 가산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3%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산 금리에 美 재무성 채권금리를 가산하면 발행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임
 -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외평채 가산 금리는 더욱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임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base point)¹⁾>

	98년 4월 ²⁾	6월말	8월 31일	9월말	12월말	99년 1월 5일
5년물	8.75%	485	975	745	340	285
10년물	8.875%	485	1000	715	375	325

주: 1) 가산금리의 기준인 美 재무성 채권 금리는 5, 10년물이 각각 4.79%, 4.92%

2) 발행금리

- 성장률 기준으로 본 99년 경제 전망에 대해 미국계 금융기관에는 낙관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유럽계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부정적 견해가 많음
 -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외국인들이 미국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 반면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아직 부정적 견해가 많은 편임
 - 미국계 금융기관들은 저금리에 의한 저축 감소 및 소비 증가, 수출 회복, 주식 및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채무상환 능력, 금융 구조조정 진전 등을 99년 경기 회복 요인으로 꼽음.
 -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실업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 신용경색, 설비투자 감소를 경기 회복 지연의 요인으로 꼽고 있음.

<외국인이 전망한 한국경제 실질경제성장률>

	Morgan Stanley(미)	J.P. Morgan(미)	Merrill Lynch(미)	세계은행	Deutsche Bank(독)	EIU(영)	Barclays(영)
1999년(%)	2.0	2.0	2.0	1.0	-3.0	-1.1	-1.0
2000년(%)	-	-	-	3.5	2.0	4.4	-
예측시기	10.28	10.23	12.3	12월	11월말	11.17	11월

□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과제

-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음. 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신용 경색의 해소가 대외신인도의 제고와 외자 유치의 관건이 될 것임
 - 현대와 LG의 반도체 부문 통합 등 구조조정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임

-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발전적인 노사문화 형성이 필요**

- 금년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상되어 대외신인도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며, 노사정위원회의 정상적 운용 등 양보와 대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 **민간 부문 외채 관리 전략 필요**

- 조기 상환의 필요성 :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 대로 하락한 상태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 부문의 단기 외채를 상환하는 것이 외환차손 방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 rollover 및 rescheduling 전략 필요 : 유동성에 여유가 없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 조정 움직임을 활용하여 현재의 외채를 보다 좋은 조건의 외채로 전환하거나 단기 외채의 중장기외채로의 만기 연장을 시도하여야 함

- **재정적자 관리에 신경**

-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항목 중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한국 경제는 그동안 재정적자 면에서 매우 우수하게 분류되었으나 정부의 재정 적자 운영으로 말미암아 재정 적자 규모 및 적자 보전 방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려가 따를 것으로 전망됨

(김 용 복 ybkim@hri.co.kr ☎724-4032, 박 병 칠 bcpark@hri.co.kr ☎724-4048)